

하동읍 비파리에 있는 넓은 벌이라는 뜻의 너뱅이들이다. 혹독한 겨울 이겨낸 밭의 보리를 베어내고 논에 모를 심는 때가 음력으로 망종이다. 이때부터 매일 달라지는 들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벅찬 감동을 느낄 수 있다.

동쪽은 금오산, 서쪽은 하동읍, 남쪽은 섬진강, 북쪽은 지리산이 위치한 너뱅이들은 하동에서 규모가 크고 오곡이 풍성한 평야로 아늑하면서도 엄마 품같은 포근함을 느낄 수 있다. 하동읍에서 시작하는 둘레길을 걷다보면 너뱅이들을 자주 만난다. 처음 시작하는 발걸음부터 에너지를 공급하는 아름다움의 대명사가 바로 너뱅이 들이다.